

화순 100원 호도택시 다음주 첫 시동

10개 읍·면 37개 마을...만 65세 주민 대상 월 1~2매 이용권 지급...1개월 내 사용해야

화순군이 민선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호도택시'운행을 관내 10개 읍·면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시한다. 화순군은 12월 오전 10시 화순읍 이삼곡리 증촌마을 앞에서 '100원 호도택시' 시승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승강장으로부터 1km가 넘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주민 534명이 이용 대상자다.

군은 면에서 해당 면소재지와, 읍에서 읍 소재지까지 이용시 월 2매(이용요금 1인당 100원)를, 면에서 군청이나 읍사무소, 읍·면 전통시장까지 이용할 경우 월 1매(3인 기준, 1인당 1200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군은 올해 호도택시 운행 사업비로 도비 9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3900만원을 확보해 협약을 체결한 호도택시 사업자에



계 이용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100원 호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만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도택시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오지 주민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새만금 송전탑 대책위 "공개검증 해보자"

미군의 우회노선 거부 관련 권익위원장에 탄원서 제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주민대책위원회가 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새만금 송전철탄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공개검증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책위는 탄원서를 통해 "권익위의 검증 결과가 맞는지 대책위의 주장이 옳은지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주한미군이 주민들이 제시한 새만금 송전선로의 대안노선(우회노선)을 거부하자 대책위는 사업 반대 결핵을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책위는 철탐의 각도를 재는 기준면이 변경됐고 해발고도와 철탐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 검증과 권익위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의회 "지리산댐 건설 반대"

전면백지화 요구 성명서 발표

남원시의회의장 장종환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명의 재산이며 천혜의 비경을 갖춘 생태계의 보고"라며 "지리산 댐이 건설되면 이런 생태계와 문화유산이 모두 파괴되고 시민

이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보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경남 함양군의회에 대해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 댐은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댐 건설로 인한 인접지역 농업의 피해,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정읍시 '농촌재능나눔' 최우수상 수상

전북과학대와 연계 사회 공헌

정읍시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농촌재능나눔'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올해 지자체 공모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개인부분 시상식과 함께 재능나눔 우수 사례발표를 통해 지자체 공모사업의 활동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는 전북과학대(7개학과 150명)

와 연계해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재능을 마을주민과 함께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농촌 마을주민들의 구강보건교육, 안경 증정, 이·미용 봉사, 행복사진 촬영 및 흥겨운 공연 무대를 여는 등 지식자산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왔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대상수상은 방학 중에도 재능나눔 활동을 펼친 학생들과 공무원,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에촌 번영을 기원하며

남원 광한루원 인근에 건립되는 '남원에촌' 상량식(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이 지난 3일 열렸다. 남원시는 2015년까지 272억원을 투입해 한옥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남원에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에촌 상량식은 11월 11일 현재 8만9695명이고 1년사이 2000명 가량 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주수이전 추정인구는 1만8061명으로 현재 인구 8만9695명의 20% 정도이며, 1만명의 인구를 전입시킬 경우 10만 남주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나주시 '2015년 인구 10만 만들기 프로젝트' 돌입

현재 9만명...전입자 지원 강화 혁신도시 건설로 점차 증가세

나주시가 인구 10만명 늘리기 운동에 돌입한다. 나주시는 지난 2일 강인규 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10만명 나주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구유입 종합 대책은 혁신도시 건설로 회복되고 있는 나주시 인구를 2015년에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사책이다. 나주시 인구는 1970년대 중반 26만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8만754명으로 바닥을 친 뒤 빛가람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감소추세를 마감하고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11월말 현재 8만9695명이고 1년사이 2000명 가량 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주수이전 추정인구는 1만8061명으로 현재 인구 8만9695명의 20% 정도이며, 1만명의 인구를 전입시킬 경우 10만 남주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회에서 강 시장은 "읍·면·동별로 차별화된 인구유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주수 이전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40여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중에 조례를 제정,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7층 참고은 피부과
입점완료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 의원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의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신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